

KEF 경총
KOREA
ENTERPRISES
FEDERATION

경제 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

2026. 1.

< 조사개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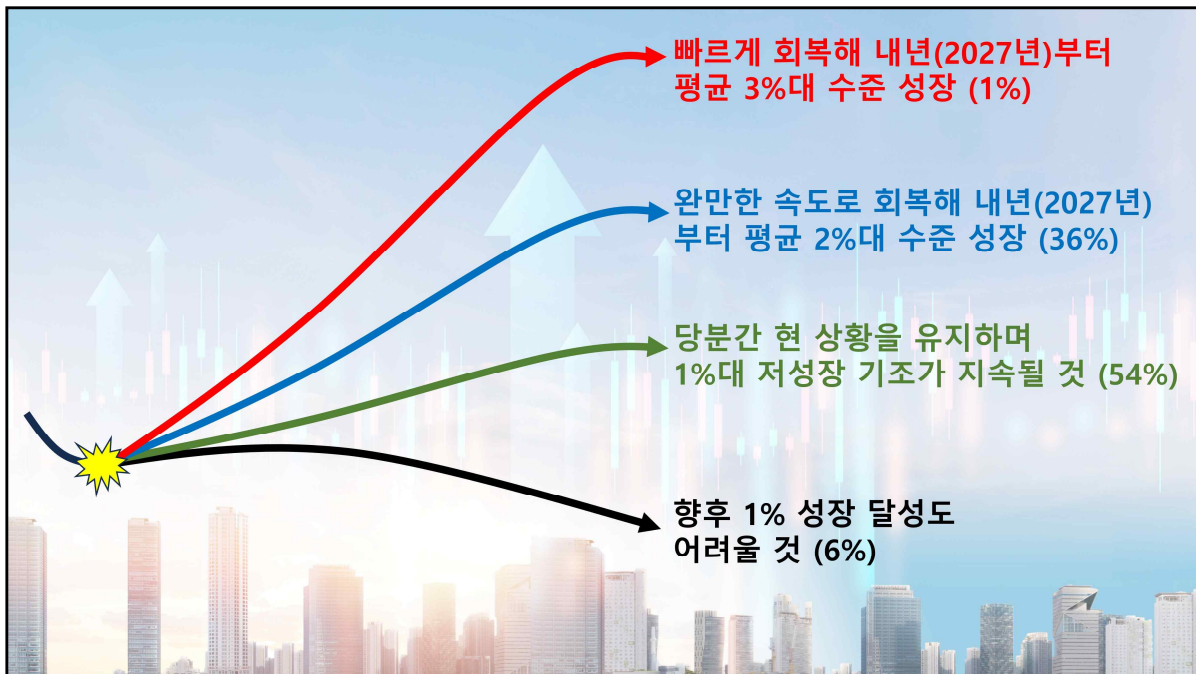
※ 「경제 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」는 한국경영자총협회 (회장 손경식)가 ㈜서던포스트에 의뢰하여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(응답자 기준)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6일부터 1월 18일까지 13일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임.

KEF 한국경영자총협회

1 향후 우리 경제, 당분간 1%대 저성장 기조 지속될 것 54%

- 향후 중장기 경제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54%는 우리 경제가 “당분간 1%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”으로 전망했음.
- “완만한 속도로 회복해 내년(2027년)부터 평균 2%대 수준 성장”할 것 이란 응답도 36%에 달함.
- “향후 1% 성장 달성도 어려울 것”이란 응답은 6%로 집계됐으며, 우리 경제가 “빠르게 회복해 내년(2027년)부터 평균 3%대 수준 성장”할 것 이란 응답은 1%에 불과했음.

< 그림 1. 향후 경제 전망 >



* : 97%이며, 의견(3%) 있었음.

2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 1.8% 전망

-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.8%로, 정부 전망치(2.0%)보다 낮았음.
-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전망한 2.0%보다 낮을 것이라는 응답이 60%로 가장 많았음.
- '2.0%'라는 응답은 35%로 나타났으며, 2.0%보다 높을 것이라는 응답은 5%에 그쳤음.

< 표 1.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(구간별) >

구 분	2.0% 미만	2.0%	2.0% 초과
응답비중	60%	35%	5%

< 참고 > 국내외 주요기관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

기관	정부 (’26.1.9)	한국은행 (’25.11.27)	KDI (’25.11.11)	OECD (’25.12.2)	IMF (’26.1.19)
전망치	2.0%	1.8%	1.8%	2.1%	1.9%

주 : ()안은 전망시점

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긍정적 영향도 기대

□ 미국 관세 정책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하는 경제학자가 많지만,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는 경제학자도 상당수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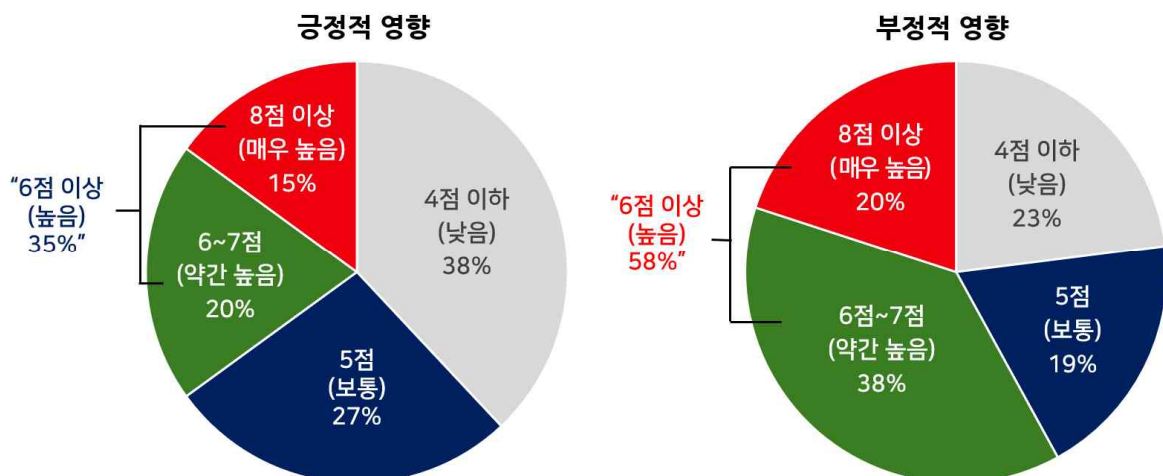
- 韓美 관세 협상이 미칠 부정적 영향*(對美 수출 감소, 국내투자 위축 등)은 “높다(58%)”가 “낮다(23%)” 보다 훨씬 높았음.

* 각각 10 척도[0점: 낮다, 5점: 보통, 10점: 높다] 실시

- 반면, 긍정적 영향(美 시장 확대, 한미 동맹 강화 등)은 “높다(35%)”와 “낮다(38%)”가 비슷하게 나타남.

⇒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관세 정책에 우리 경제의 강점을 활용해 최대한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, 경제학자들은 韓美 관세 협상으로 부정적 효과를 더 크게 우려하면서도, 긍정적인 기대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

< 그림 2.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협상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>



4

반도체, 조선 등 첨단 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해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 “시급성 높다” 87%

□ 최근 주요산업 핵심기술 해외 유출 증가로 기업 경쟁력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,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우리 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해 처벌수위 대폭 강화 같은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응답했음.

○ 시급성*이 “높다(6점 이상)”는 응답이 87%**였으며, 특히 “매우 높다(8점 이상)”는 응답이 72%에 달했음.

* 척도[0점: 낮다, 5점: 보통, 10점: 높다] 실시

** “높음(15%)” + “매우 높음(72%)”

○ 반면, 시급성이 “낮다(4점 이하)”는 응답은 6%에 불과했음.

사례		유출	
A	D	10	D
-A	1.6	10	D
-	C	2023	10
D	확보		D
-2024	A	5	수준,
-1	7년·	2억원, 2	6년·
		2	2
		선고,	추정
			중

: 보도자료, '25.12.23. 등

< 그림 3. 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의 시급성 >



5

근로시간 유연화 “필요성 높다” 80%
임금체계 개편 “필요성 높다” 8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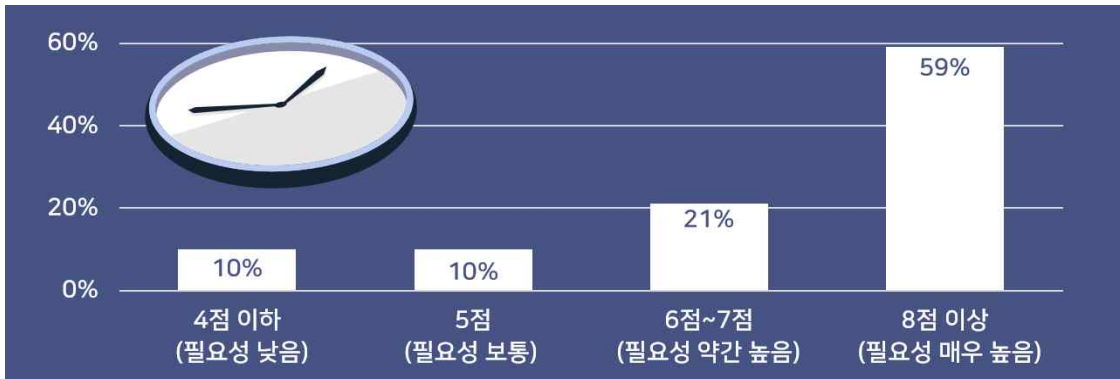
□ 대다수 경제학자가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했음.

○ 부작용에 비해 필요성*이 “높다(6점 이상)”는 응답이 80%**, “매우 높다(8점 이상)”도 59%에 달했음.

* 낮다, 5점: 보통, 10점: (10 척도[0점: (비해) 실시
 높음(21%) + 보다) 높다]

** 높음(59%)

< 그림 4.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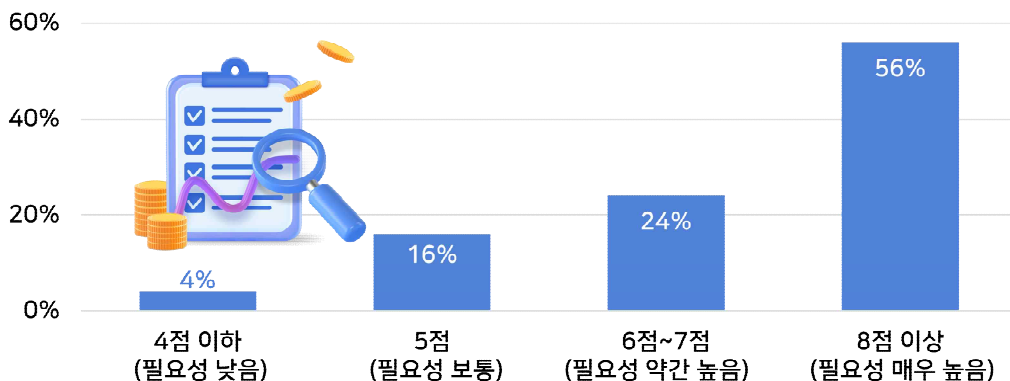
□ 직무·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역시 필요성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음.

○ 부작용에 비해 필요성*이 “높다(6점 이상)”는 응답이 80%**로 집계됐으며, “낮다(4점 이하)”는 응답은 4%에 불과했음.

* 낮다, 5점: 보통, 10점: (10 척도[0점: (비해) 실시
 높음(24%) + 보다) 높다]

** 높음(56%)

< 그림 5. 직무·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>



6

올해 환율(원/달러) 전망 평균 최저 1,403원, 최고 1,516원

□ 올해 환율(원/달러) 전망은 연간 최저 1,403원, 최고 1,516원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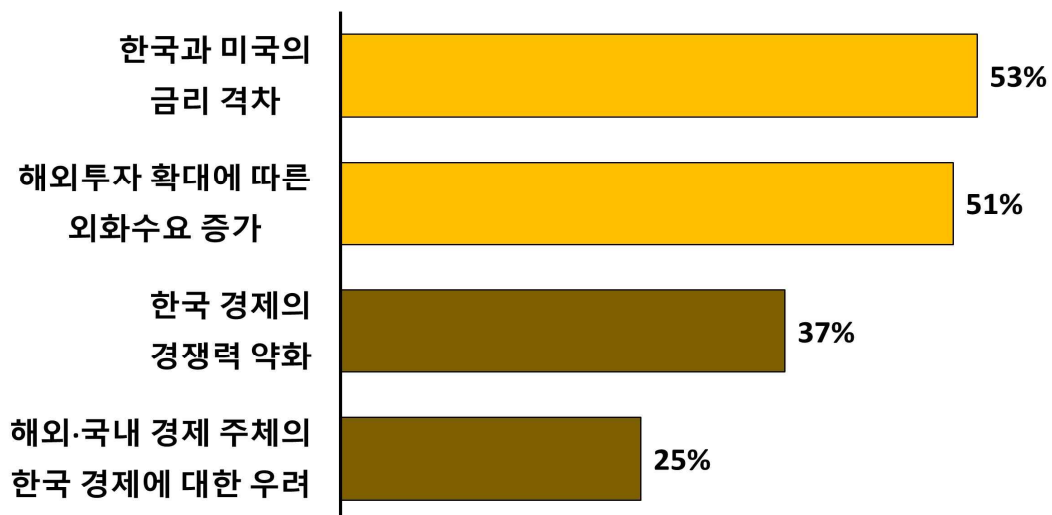
< 표 2. 2026년 연간 환율(원/달러) 전망 >

구 분	최소값	평균	최대값
최고점(원/달러)	1,450	1,516	1,650
최저점(원/달러)	1,300	1,403	1,500

□ 최근 고환율의 주된 원인으로, “韓美 간 금리 격차”(53%), “기업, 개인 등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수요 증가”(51%) 응답이 많았음.

○ “한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” 응답은 37%, “해외·국내 경제 주체의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(심리적 요인)” 응답은 25%로 각각 집계됐음.

< 그림 6. 최근 고환율의 주된 원인 >



: 2 가능, 각 100% 초과

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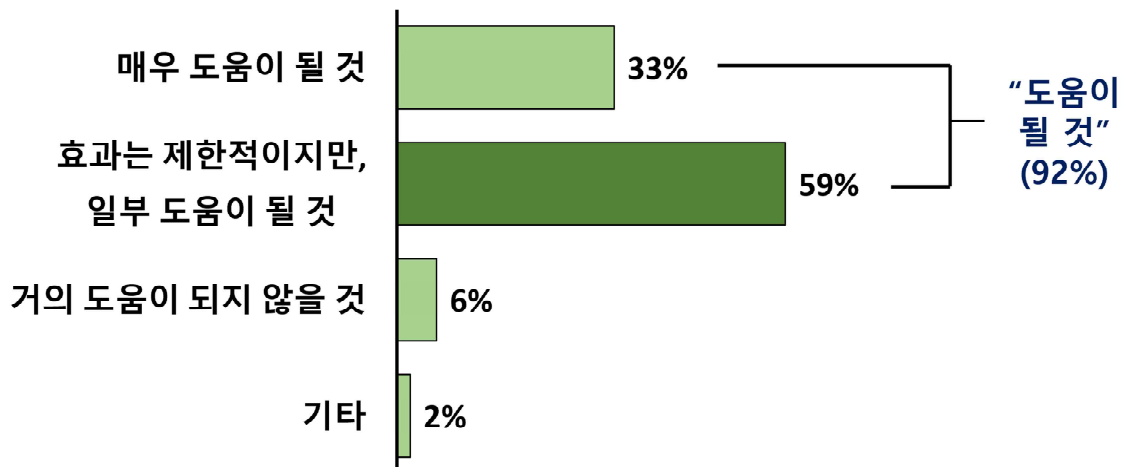
AI는 노동력 감소, 생산성 하락 같은 우리 경제 문제에 “도움될 것” 92%

□ 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노동력 감소, 생산성 하락 같은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“도움이 될 것”이란 응답이 92%*로 가장 많았음.

* “제한적이지만, 도움될 것(59%)” + “매우 도움될 것(33%)”

○ “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” 응답은 6%에 불과했음.

< 그림 7. AI 확산이 우리 경제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>



조사 개요

1. 조사목적

최근 경제 상황 진단 및 2026년 경제 전망에 대해 경제전문가*의 의견을 수렴하여, 향후 기업 경영환경 변화 대응 및 전략 수립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*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

2. 조사기간 및 조사 수행기관

- 조사기간 : 2026년 1월 6일 ~ 1월 18일 < 13일간 >
- 조사수행기관 : (주)서던포스트

3. 조사방법

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및 유선 조사를 병행하였음.

4. 주요 조사항목

- 경제 상황 진단, 향후 경제성장률 추이 전망, 환율 전망
- 고환율 원인, 한미 관세 협상 영향, AI 도입 효과에 대한 평가 등

5. 회수 설문 수

구분	회수 설문 수
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	100명